

2017년 5월 9호

글쓰기를 시작하기 위한 노트



윤태영,
<윤태영의 글쓰기 노트> (2014) 中




차 의과학대학교 학습지원센터

[01] 한 권 쓰는 게 열 권 읽는 것보다 백배 낫다

“나는 결국 이것밖에 안 돼.
이게 내 현실이야.”

“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걸까?”


“도대체 누가 이 글을 읽는단 말인가?”

중단 없는 글쓰기로 극복해야 할 첫 번째 고비이다.
유치한 모방도 좋고 진부한 표현도 좋다.
한 권 쓰는 게 열 권 읽는 것보다 백배 낫다. 

[02] 작은 고추가 매운 법

제가 대통령이 되면,
기회의 평등, 과정의 공정함,
결과의 정의라는 국정운영 원
칙을
바로 세우겠습니다.

제가 대통령이 되면,
'공평'과 '정의'가 국정운영
의 근본이 될 것입니다.
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.
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.
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.

글은 단문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.
단문 위주로 쓰다가 조금씩 긴 문장을 섞은
습관을 들이자.
늘어지지 말고 긴장을 유지하자 

[03]

글은 머리가 아니라
메모로 쓴다

“모릅니다”라는 답변보다는

“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”

머리로 기억하는 데에는 용량의 한계가 있었다.

대체로 읽은 것은 머릿속에 남고,


쓴 것은 컴퓨터에 남는 법이다.

머리가 기억 못하는 메모들을 모아

엮으면 하나의 글이 되기도 한다 

[04] 마감은 데드라인

글쓰기의 세계도 결국은 일종의 경쟁이다.
최소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.

더 시간을 들여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도 있지만,
마감 내에 글을 완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.
높은 완성도도 중요한 명제이지만
낮은 단계의 완성은 더욱 중요하다.
일단 완성했다는 자신감은
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발판이 된다 

[05]

'이름 모를 소녀',
신비함의 유혹에 빠지지 말자

산과 들에는 이름 모를 꽃들이 잔뜩 피어 있었다.
하늘에는 낮익은 철새들이 날고 있었고,
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구름이 등실 떠 있었다.

산과 들에 개나리, 진달래, 산수유 꽃이 일제히 피었다.
강남에서 날아온 제비들이 하늘을 날았고,
하얀 구름들은 서에서 동으로 몰려가고 있었다.

글 쓰는 사람은 독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.

추상적이고 애매한 문장은 좋지 않다.

구체적이고 정확한 표현이 머리에 오래 남는 법이다.



[06]

쉽고 간결한 문장이
강한 인상을 남긴다

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.

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.

**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면
쉽게 이해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.
철저하게 읽는 사람의 용어로
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_____**



[07] 워드프로세서 실력도 글쓰기 능력이다

시험 삼아 글을 써 볼 수도 있고
무한대로 수정이 가능하다.
지웠던 글도 살려낼 수도 있고, 같은 주제의 글을
여러 버전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.
저 이백 쪽 뒤의 글을 맨 앞으로 끌고 와 갖다 붙일 수도 있다.
단어의 찾기는 물론,
일괄해서 한꺼번에 바꾸는 작업도 가능하다.

워드프로세서에 익숙하면
그만큼 효율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다.
시간과 공력을 들여서라도
워드프로세서를 능숙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. 